傘下支部動靜

▲協會本部

지난 8·12日 京畿水原所在 林業研修院으로부터 生藥栽培 및 全般的流通개환에 대한 講議조빙을 받고 事務局長이 3時間동안 出講한바 있다.

이날 實施한 出講概要는 다음과 같다.

1、被敎育 對象者 : 全國 里, 洞 山林係長 100名

2、敎育時間 : 8·12日 15時~17時50分間

3、敎育課目

· 全國的인 生藥分布
· 生藥材의 流通現況
· 生藥材의 生産現況
· 生藥材의 輸出入現況
· 生藥材의 時勢現況
· 自然生 採取節次 및 山林係長과의 聯關性
· 生藥材栽培 및 流通展望

· 協會조직 및 기능紹介

그런데 이 敎育은 林業研修院 敎育計劃에 依據全國 里·洞 山林係長 約400名에 對한 교육이 단계적으로 實施될 것이라고 하며 生藥栽培 및 採取등 副存資源活用의 必要性을 강안할때 協會로부터의 계속적인 支援出講이 要望된다고 하였다.

▲慶南道支部

8·3日 慶南支部管下 月例 緣生會를 밀양군 소장(이종수) 주관으로 開催 : 主要의제~會費納付實績增大

▲江原道支部

8·14日 江原支部管下 月例 緣生會를 영월군 소장(심호섭) 주관으로 開催 : 主의제~自體事業基金造成 확대

▲慶北道支部

8·11日 慶北支部管下 定例 緣生會를 副支部長(박재문) 주관으로 安東에서 開催 : 主의제~支部會員의 團合과 친목 증대

韓方醫保확대 96%가 찬성

갤럽硏, 1천명 조사… "중풍치료 등 우수" 감기·몸살땐 지료비 싼 洋方찾겠다 56%

우리 국민은 호흡기질환이나 감기 몸살등에는 洋方이 韓方에 비해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중풍고혈압 신경통 등에는 한방이 오히려 낫다는 인식을 갖고있다. 또 현재사회적인 관심이 되고있는 한방의료보험의 전국확대실시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가 찬성의사를 표시하고있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6일 전국의 만20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방과 양방의료기관의 이용실태및 의식조사」에서 밝혀졌다.

주요 질환별 치료효과에 관한 인식도조사에서는 중풍고혈압의 경우 70·8%가 한방이 우수하다고 답했으며, 양방은 15·9%에 불과했다. 신경통의 경우도 한방 52·2%, 양방 27·2%로 나타난 한방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감기—몸살이나 호흡기 질환등은 양방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각각 55·3%, 56·2%로 한방 33·2%, 30·1%에 비해 많았다. 요통 부인병 만성위장염 등은 양방이 한방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한방의료보험의 전국확대실시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는 찬성이 96·8%, 반대가 2·4%로 전폭적인 지지를 보였다.

이와 관련, 한방의료보험이 실시될 경우 한방을 어느정도 이용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86·8%가 지금보다 더 많이 이용하겠다고 답변했다.

치료비에 대해서는 감기·몸살의 경우 한방병 의원이 더 비싸다는 응답이 60·9%, 양방병 의원이 비싸다는 응답이 18%로 나타났으며, 치료비가 비슷한 경우 어느 의료기관을 이용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양방 58·1%, 한방 41·9%의 비율로 대답, 양방에 대한 신뢰가 다소 앞서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현재의 의료기관 이용률은 양방 82·6%, 한방 17·4%로 나타나 많은 사람이 치료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한방대신 양방을 택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 2면에서 계속 >

진노인의 단골은 주로 아침체조를 끝내고 출근준비를 하는 사람들이거나 밤늦은 시간에 출출함을 달래기위해서 찾는 동네 사람들이다. 또우장은 비닐봉지에 담아 해서 출근시간 스에 쫓기는 사람들은 버면서 안에서 이를 마시면서 사무실로 향한다.

진노인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일이라고한다. 그는 한가한 낮시간에 공원이나 학교 뜰에 나가서 타이지쥔(太極拳)이라는 체조를 한다. 고양이, 뱀 등의 동물동작을흉내내서 만들었다는 이 체조는 중국에서 아침 노인들이 어울려서 이면 거의 모든 동네 기는 운동이다. 하루 시간 반 가량 이 체조로 땀을 빼지 않으면 무언가 개운치 않다는 것이 진노인의 얘기다.

가게를 열기 전까지 진노인도 새벽에 이 체조를 즐겼다고 한다. 요즘도 부인이나 딸이 아침일을 하겠다고 하면 진노인은 아침체조를 하러 나간다. 그러나 몇년 전부터인가 체조를 한 후 집안일을 돕는 다른친구들과 마찬가지다. 가끔 주변 정치대학에 유학온 외국학생들이 이상한 듯이 쳐다보지만 있는 대북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다.

이처럼 대만의 보통 사람들은 자기 형편대로 산다. 악착같이 벌어 한심스럽게 써버리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진노인의 큰딸은 음식점일을 도울 때 교복을 입은 채로 음식을 튀기거나 나른다.